



“영이만 햇살이 키운  
신토불이 포항 쌀을  
먹읍시다!”

“포항사랑, 포항쌀사랑”  
우리 가족 밥상은 언제나 건강하게



# 그대에게 가는 길

새벽길 달려 그대에게로 간다.  
시리던 별빛 이미 여우고  
눈썹달 빠진 호미곶에 몸 부픈 파도도 붉어져 온다.

밤안개 속 길을 열던 등불이 심지를 낮추고  
따사로운 햇살 모으는 동해의 아침  
가슴 먼저 달려가는 그대의 길은  
이미 밤을 새운 기다림으로 투명해지고 있는 것을

내 가는 길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그대 가는 길이 그대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미 홀로 빛나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러  
그대 나에게 말하러 발소리 죽이며  
서로에게 다가가는 오늘  
우리 함께 가는 참 따뜻한 이길

이석현 시인

충북 충주 출생, 2002년 「작가정신」 신인상으로 등단, 포항문학 회원.

한국작가회의 경북지회 회원, POSCO 근무

# 열린 포항

www.ipohang.org



04



05



06



08



12

## 2009 8 CONTENTS

- 04 New Start 2009 | 포항시 승격60주년 기념사업
- 05 현장탐방 | 새마을기념관 건립 현장을 가다
- 06 포커스 |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 08 기획 | 포항 CI 어떻게 달라지나
- 10 포항칼럼 | 영일만항 개항에 부쳐
- 12 화보특집 | 시승격60주년 포항12경 선정
- 16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⑥ 형산강과 영일만이 만난 이야기
- 18 문화마당 | 공연, 행사, 단신, 기타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영일만항이 첫배가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8월 25일 (통권 73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포항시대 「영일만 르네상스」 선언 & 포항타임캡슐 제막

## 포항시

는 이달 15일 시승격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영일만 신화'로 불리는 '제1의 영일만시대'를 마무리하고,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제2의 영일만시대'를 열면서, 이른바 '영일만 르네상스' 선언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 60년 포항이 이룩한 '영일만 신화'를 아날로그 타임캡슐로 보존하여 후세까지 새기고,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디지털 타임캡슐로 제작한, 지지않는 태양으로 불리는 '포항타임캡슐'에 대한 제막식을 가졌다.

○...영일만 르네상스 선언은 포항의 지난 60년을 새마을운동과 제철보국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창조한 신화의 도시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60년의 도래와 의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자세와 각오를 담고 있다. 선언에 담긴 새로운 60년의 포항은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비즈니스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세계일류도시로 비상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기상과 발전체제로 영일만르네상스를 실현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제막식을 가진 포항타임캡슐의 공식명칭은 'New Start 2009 Pohang Time Capsule'로 시청사 지하1층 솔라갤러리에 설치되었다. 기존의 타임캡슐과 같이 매립하거나 조형물 형태로 제작하던 방식을 탈피해 복합형 디지털 타임캡슐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2069년 시승격 120주년 기념일에 개봉될 타임캡슐에는 영상, 사진, 미술품, 기념서적, 홍보물 등 각종 기록물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현재의 포항시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1

- 1 시청사 내부에 설치된 타임캡슐 조감도
- 2 아날로그 타임캡슐(과거)
- 3 미디어 스피어(현재)
- 4 디지털 타임캡슐(미래)



2 | 3 | 4



##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운동 이제 세계로 나간다

1

##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가 발상지인 새마을운동이 세계화되고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들어 근면 협동 자조의 기치아래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새마을운동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한 국민운동이었다. 포항은 그 발상지답게 오는 9월 17일 기계면 문성리 소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개관한다. 지난 1971년 9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대동하고 기계면 문성리를 찾아 "전국 시장 군수는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는 지시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횃불을 밝힌지 꼭 38년만의 일이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은 총사업비는 42억3천만 원이 투입되고 부지면적 7,654㎡(2,315평)에 건축연면적 1,139㎡(345평) 지상2층 규모로 기념관, 역사관(전시실), 주차장, 조정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외형은 마무리되었다. 내부 막바지 공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층 전시실은 어둠의 터널 및 희망의 빛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개요, 새마을운동 바로알기, 새마을운동 변천사 등이 전시되고 2층 전시실은 새마을운동발상지와 만나다, 새마을사업 현장 사진, 새마을사업으로 받은 훈·포장 및 표창장, 문성리를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 새마을운동발상지 관련 박정희 대통령 유시, 새마을지도자증 등 각종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그리고 2층 영상실에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관련 대한뉴스 자료 발췌분과 새마을운동발상지 홍보영상물 등이 상영된다.

포항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준공되면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의 전시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시민 자긍심 제고는 물론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양성, 외국인 새마을교육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1 개관을 앞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해 명품거리가 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또** 하나의 명품거리가 탄생했다. 북부해수욕장에 조성된 자연테마거리가 중앙상가 실개천에 이어 새로운 명품거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른바 '명품거리2호'로 불리며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거리는 포스코 야경을 비롯해 고사분수 등 영일만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야외무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와 낭만이 넘치는, 한층 높아진 영일만의 새로운 명소로, 휴식처로, 건강코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거리는 포항시가 북부해수욕장 일대를 시민친화형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사업비 25억5천만 원을 들여 조성했다.

북부해수욕장 남쪽 끝단인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두호동 존메디칼 앞까지 1.2km 구간에 걸쳐 목재데크와 해변감상의자, 바다감상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녹색길(Green way), 해송터널, 놀이마당, 간이무대 등이 설치돼 시민의 휴식 및 건강 공간을 넘어 포항의 새로운 해양문화를 꽃피울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테마거리 조성으로 그간 사용하던 주차장이 사라져 다소의 불편과 불만이 있지만 자동차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확보해 포항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성된 테마거리는 오션르네상스의 실질적인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동빈 부두가 정비되고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여기에 동빈내항 복원사업까지 이루어지면 오션르네상스가 꽃을 피울 것이다.

① 중앙상가 실개천에 이어 새로운 명품거리로 발돋움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②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 목재데크 등이 설치돼 시민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③ 자연테마거리에서 시민들이 한어름밤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 새로운 CI로 새로운 60년 시작

**브랜드** 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단순 상표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브랜드는 조직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박지성이 뛰고 있는 축구 명문가 맨유의 브랜드가치는 1조4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포항 브랜드는 포항을 평가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포항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특허청 지원사업인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통해 포항시 브랜드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브랜드는 인지도는 높으나 권위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상징과 캐릭터는 그 구조와 활용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항시는 시승격 60주년과 영일만항 개항을 맞아 '도시브랜드 파워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글로벌 도시마케팅을 위해 21세기형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들어가 최근 새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참조>

하단의 이미지는 변경 CI의 모티브. 왼쪽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무한가능성, 정보/문화의 교류, 문화(다양성)을 의미한다

## 심벌마크

국제교류와 해양문화의 중심도시 포항의 비전을 담아 영문을 이용한 워드마크 형태로 개발했다. 원형 그리드(grid)를 기본 모티브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문화의 교류를 표현하였으며, 풍성

pohang  
포항시

하고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삶과 자유와 활기가 넘치는 무한 가능성을 내포한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아 독특한 서체로 개발되었다.

## 도시 브랜드

역동적인 포항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가 되기 위한 염원을 담았다.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새색과 하트모양으로 친근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퍼져 나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리뉴얼하여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포항시의 희망을 담고 있다.

## 캐릭터

해(연오)와 달(세오)을 상징하며, 포항의 정체성이 담긴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빛과 희망을 상징하며 포항의 활기·즐거움·자유·희망·열정은 붉은 계열의 태양 캐릭터로, 첨단·글로벌·무한성장·꿈·에너지는 파란 계열의 달 캐릭터로 표현했다. 한 쌍의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며 밝은 표정과 경쾌한 동작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 색상

국제교류와 해양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파란색(Blue)을 도시 색으로 지정하였으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친환경적인 이미지인 연두색(Light Green)과 행복한 삶의 이미지인 주황색(Orange)을 보조색상으로 채용했다.

하단의 이미지는 포항시의 새로운 CI. 왼쪽부터 캐릭터, 시가, 도시 브랜드, 심벌마크



powerful  
pohang

pohang  
포항시

# 지역 및 국가 경제 부흥의 역할 특특히 할 것



권준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 1992년

영일만항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지 정확히 18년이 지난 2009년 8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다. 포항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인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가 개장한 것이다.

이로써 조그만 포구에 불과했던 포항이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로, 첨단산업기반 도시로 성장했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영일만항은 21세기를 대비한 환동해권의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써 대구·경북 권 및 중부·내륙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라는 개발 필요성은 절실했으나 컨테이너 부두의 성공여부에 냉소와 우려의 시각도 컸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듯 지난 8월 8일 준공된 컨테이너부두는 지난 2005년 8월에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준공되어 3만 톤급 4선석의 개장으로 연간 48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위풍당당한 위용을 드러냈다.

영일만항은 국제컨테이너 부두로써 뛰어난 접근성, 넓은 야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선·화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내 어느 항만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당당한 항만이다.

여느 항만과 컨테이너터미널의 개장과 달리 영일만항 개장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은 단순한 컨테이너 부두 준공 이상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경북권 최초의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어 철광석과 철재류 중심의 단순한 항만산업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을 통한 각종 항만관련사업의 발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간 철강산업으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오던 포항은 이제 세계 각지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날개가 생겼다. 그동안 부산, 울산을 통해 수출입된 포항 지역 비철재품은 이제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게 된 것이다.

셋째, 영일만항 개장은 포항이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일만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대구~포

항고속도로 접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배후도로 건설 등은 포항지역의 기반시설을 몰라보게 달라지게 하고 있다. 항만자유무역지역과 일반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국내외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은 포항지역의 지도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영일만항은 고용창출 면에서 2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배후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효과로 1조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파급효과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특특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영일만항이 환태평양 물류중심항만, 명품항만으로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련 극복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풍부한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항로개척과 기항빈도를 높여나가 선·화주에게 매력있는 항만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던 물동량 확보만을 가지고는 글로벌항만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체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일반산업단지들 조기에 조성하여 굴지의 물류업체와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부두이용협약을 체결한 화주업체들의 물량이 그대로 영일만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지활동 시 약속한 각종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일만항 이용이 기업이윤 창출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일만항이 개장되어 선박이 입항하기 시작하면서 물류 흐름을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신생항만이 가질 수 있는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영일만항이 화주나 선사 등 이용자들로부터 경제성, 안정성, 신속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명품항만으로 인식될 때 제2의 영일만 기적은 목전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하다.

이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영일만항은 “가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항만” 건설을 지상명제로 가슴에 새기고 부단히 갈 길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염원과 축복 속에 역사의 전면에 나선 영일만항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글로벌 포항’을 기필코 앞당겨 도래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심장이 되어 뜨겁고 힘찬 박동을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실어 나르는 영일만항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을 안아볼 수 있는 곳, 영일만항의 빛이 세계를 환히 밝힐 그 날을 기대해 본다.



1 영일만항이 역사적인 개항의 순간을 맞아 선적을 하고 있다

# 영일만 정기 따라 포항12경<sub>를</sub>을 담아보자

● ● ● 포항은 163Km에 달하는 수려한 해안선을 자랑한다. 아울러 해안선을 따라 빼어난 경관을 지닌 명소들 또한 즐비하다. 예로부터 호미곶 일출은 조선 10경 중 으뜸으로 꼽혔을 정도로 포항의 경관은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초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최근의 숫자 마케팅 경향에 맞춰 '포항 구(9)경'을 선정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국적 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명소가 워낙 즐비한 탓에 9경 선정을 포기하고 '포항 12경'으로 확대 선정했다. 포항시승격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1일 '포항12경'을 최종 심사 확정하고 15일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곧 포항12경에 대한 사진전 공모에 들어가고 올해 내로 이를 화보집과 달력 등으로 제작하여 배부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안내 종사자를 통한 설문조사 등으로 12경 선정(안)을 작성했고, 이를 두고 7월부터 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이달 15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게 됐다. 영일만 정기 따라 포항12경을 담아보자. 이번에 선정된 12경과 주변 볼거리는 다음과 같다. ● ● ●

1. 대보 호미곶 일출(日出)
2. 내연산 12폭포 비경(秘境)
3. 중앙상가 실개천 야경(夜景)
4. 포스코 야경(夜景)
5. 아름다운 덕동문화마을 숲
6. 경상북도수목원의 봄 경치
7. 운제산 오어사 추경(秋景)
8. 장기읍성의 일월(日月)맞이
9. 사방기념공원 주변 풍경(風景)
10. 대보 호미곶~임곡간 해안 절경(絶景)
11. 환호해맞이공원 주변 경관(景觀)
12. 죽장 하옥계곡의 여름

1. 대보 호미곶 일출(日出)  
해맞이 광장, 상생의 손, 연오랑세오녀상, 과메기탑, 등대박물관, 유채꽃 및 청보리밭, 낙조 전망대 등

# 포항 12경과 주변 볼거리



2. 내연산 12폭포 비경(秘境)  
보경사, 내연산 계곡의 소·담·연산폭포 및 12폭포·구름다리 등



7. 운제산 오어사 추경(秋景)  
오어지, 자장암, 원효암, 운제산 단풍, 대왕암



8. 장기읍성의 일월(日月)맞이  
배일대, 장기향교, 정약용·송시열 시비



3. 중앙상가 실개천 야경(夜景)  
도심을 흐르는 실개천



5. 아름다운 덕동문화마을 숲  
용계정, 사우정고택, 애은당고택, 이원돌 가옥, 송계숲 등

6. 경상북도수목원의 봄 경치  
산책로, 전망대 등



9. 사방기념공원 주변 풍경(風景)  
칠포, 월포 해안 절경 및 동해의 푸른 바다

10. 대보 호미꽃~임곡간 해안 절경(絶景)  
독수리 바위, 구룡소, 장군바위, 하선대



11. 환호해맞이공원 주변 경관(景觀)  
북부해수욕장 야경 및 고사분수 등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



4. 포스코 야경(夜景)  
형산강제방 및 북부해수욕장, 환호해맞이 공원, 청룡회관에서 바라본 포스코 야경

12. 죽장 하옥계곡의 여름  
기암절벽, 맑은 물, 단풍 등





# “임금님!

“또 난리입니다.”  
 “후백제가 또 쳐들어왔단 말이나?”  
 “후백제가 아니라 물난리입니다.”  
 “그럼 또 안강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온단 말이나?”

“그러합니다. 빨리 백성들을 피난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린 비는 북형산쪽이 막혀있는 바람에 안강을 가득히 채우더니 결국 서천과 알천을 넘쳐나게 만들었어요.  
 ‘다 내가 덕이 없는 탓이야.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경순왕은 얼굴을 감싸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점점 좁아지는 국토인데 물난리까지 나면서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왕의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지요.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는데 …….’  
 후백제 견훤의 군대가 서라벌까지 침공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견훤의 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었어요. 비록 힘은 없지만 천년 동안 이어온 신라를 그대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 형산강이 영일만을 만난 이야기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여봐라! 천년을 이어온 나라가 이렇게 사방에서 도적떼가 일어나고 왕이 적의 손에 죽는 일은 틀림없이 하늘의 조화 속일거야. 그러니까 그 연유와 적들을 물리칠 방법을 자세히 알아오도록 하여라.”  
 경순왕은 대신 한 사람을 하늘의 이치를 잘 살피는 일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대신은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 신라를 무너뜨릴 세력은 북쪽 궁예도 아니고, 서쪽 후백제도 아니고 동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형산을 끊어 안강 호수의 물을 동쪽 바다로 흘러 보내야만 그 땅의 기운이 제압될 것이라고 하옵니다.”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산을 옮기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오?”  
 “일관의 말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옵니다.”  
 경순왕은 막막했어요.  
 신라에는 형산이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신라의 어머니 산인 서형산, 선도산이었으며, 하나는 북형산이었답니다.  
 서형산이 어머니의 산이라면 북형산은 서라벌 북쪽을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은 산이었지요.  
 경순왕은 아홉 아들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효성이 지극한 김충이 나섰어요.  
 “제가 하늘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백 일 동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김충은 형산 밑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순왕도 거친 배옷을 입고 목침으로 삼층 제단을 쌓아 기도를 했어요. 백일이 되자 김충에게 하늘의 말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뱀이 되게 하겠다. 그 꼬리로 형산을 치도록 하여라.”  
 “아니, 하늘님! 뱀 꼬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산을 치단 말입니까?”  
 하늘이 노하여 그만 말을 뚝 끊었습니다. 김충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늘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서둘렀기 때문이었어요.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김충은 다시 매달렸어요. 간신히 마음을 돌린 하늘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서두름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지겠구나. 아무래도

다시 백일 안에 너를 용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충의 몸은 검붉은 뱀으로 변했어요. 햇살이 내리찍는 길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그늘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용이라고 불러줄 게 아니겠어요.  
 비가 오면 찬비를 그대로 맞았어요. 뜨거운 햇살은 뱀가죽을 새카맣게 태우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징그러운 뱀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며 긴 작대기로 마구 내려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길바닥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일이 다 지나가도록 용이라고 부를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루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김충도 정신이 가물거릴 지경이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내 정성이 부족하여 신라를 끝내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만 눈을 스프르 감는데 희미하게 사람소리가 들려왔어요. 앵앵거리는 아이를 달래려고 마실나온 할머니였어요.  
 “아이쿠, 저놈의 구렁이가 아직도 저기 있네.”  
 “할머니! 어디 저게 뱀이에요. 용이구만 용.”  
 아이가 훌쩍거리며 용이라고 했어요.  
 정신이 가물거리던 김충의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꿈틀거리더니 두꺼운 허물이 벗겨지면서 거대한 용이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용은 형산을 한 바퀴 휘감았다가 스프르 꼬리를 치켜들더니 형산 가운데를 힘껏 내리쳤어요. 하늘을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산허리가 멀리 바닷가로 날아갔어요. 움찔거리던 호수 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로 달려갔어요.  
 그 물길을 따라 가던 용은 바닷물과 만나는 곳에서 한 줄기 물줄기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올라갔어요.  
 물이 다 빠져나간 안강에는 넓은 들이 생겼어요. 경순왕은 뱀을 용으로 불러 준 아이에게 새로 생긴 땅을 주고, 땅의 이름도 아이의 이름을 따라 유금이라고 불러게 했어요.  
 형산에는 왕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있는 왕장군왕전에는 경순왕과 김충의 목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 [공연]



# [단천]

## 》》한여름밤의 팝스 콘서트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8월 28일 20:00
- 장 소 : 환호공원
- 프로그램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외

## 》》주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 효곡동, 대이동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4일 20:00
- 장 소 : SKview 야외무대
- 프로그램 : 영화 '티파니의 아침' 中 문리버 외

## 》》시립합창단 캠퍼스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5일 11:00
- 장 소 : 중앙여고

## 》》라벨과 그의 세계

- 시립교향악단 제98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11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김종근의 불과 소나무

- 포항 시승격60주년 경축 기획전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15 ~ 29일 ※오프닝 : 15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관람시간 : 10:00 ~ 19:00

## 》》아프리카의 미사

- 시립합창단 제71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17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프로그램 : 남미의 미사 하이라이트, 한국민요
- 관람연령 : 7세 이상

## 》》2009 포항청소년 합창제

- 주최주관 : 포항시, 포항합창연합회
- 일 시 : 9월 19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프로그램 : 도라지꽃/박지훈 외 다수
- 관람연령 : 7세 이상

## 》》차향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23일 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프로그램 : 1부-화가 김종근의 작품해설, 2부-시립합창단 세계의 미사 하이라이트, 3부-한국민요

## 》》「카르멘」 갈라 콘서트

- 해설이 있는 오페라
- 주최주관 : 포항시, 포항오페라단
- 일 시 : 9월 25 ~ 26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15,000원), A석(10,000원), B석(5,000원) 유효회원 30% 할인  
단체 및 학생(고등학생까지) 30% 할인

## 》》일월문화제, 시민참여 축제로 거듭난다

일월문화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일월문화제는 중앙상가 실개천을 비롯해 환호해맞이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시내일원에서 펼쳐진다. 10월8일 시청 문화복지동에서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26개 지역 문화 예술 단체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풍물경연대회'를 여는 것은 물론 지신밟기, 월월이청청, 지게상여놀이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도 벌인다. 공연행사는 환호해맞이공원에서 펼쳐지는 실버가요제를 비롯해 각종 국악·연극·무용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상가에서 준비 중인 학춤보존회의 학춤공연과 향토청년회의 '청소년파워축제는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춤과 현대의 춤이 어우러진 문화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성황리에 마쳐

제9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4일 성황리에 마쳤다. 환호해맞이공원 해맞이극장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9일간 펼쳐진 이번 연극제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주제로 국내외 19개 연극·무용단체가 정극과 뮤지컬, 마임, 무용, 일인극 등 다양한 볼거리로 2만5천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제공했다. 개막 및 폐막 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연극의 바이블로 일컫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랑의 헛수고' 등의 명작이 공연되었고, 또한 포항시승격 60년을 기념하는 포항시립극단의 '형산강아 말해다오'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등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지역 문화를 표현해내는 고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포항을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0년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국내 최초로 연극 올림피아드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고인돌 탐방 프로그램 인기

포항시는 가족애와 향토애의 의미를 되새기는 '2009년 가족과 함께하는 고인돌 탐방 프로그램'을 청소년가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8·9일 이틀간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고인돌 탐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들이 동해바닷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포항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을 탐방하고, 별자리이야기 및 우주천체의 이해활동과 생태환경체험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과 가족애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기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 》》도서관에 오면 책 읽어 줍니다!

포항시립영암도서관은 8월부터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매주 화~금 오후 2시30분~3시30분까지 3편 이상의 동화를 개별이나 집단으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청소년 봉사활동과 사서 및 독서도우미들로 운영된다. 영암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전화(270-5675)나 홈페이지(www.phlib.or.kr)를 이용하면 된다.

### 포항영일만항, 국제비즈니스 중심항만을 향해 '출항'



포항영일만항이 8일 컨테이너부두에서 역사적인 첫 입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최영만 시의회의장, 화주 선사 대표,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영일만항 개항을 축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첫입항식을 가진 선박은 천경해운 소속 650 TEU급 '이글 스카이호'로 입항식을 마친 후 부산항으로 출항했다. 이 선박의 삼손(SAMSON·필리핀국적) 선장은 박승호 포항시장으로부터 축하 꽃다발과 함께 기념패를 받았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은 지난 41년간 포스코를 통해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하며 '영일만의 기적'을 낳았고 시승격 60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먹고 살릴 영일만항을 개항하게 됐다"며 "국제

물류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 환동해경제권 중심도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포항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으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영일만항에 있다"며 "영일만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물류가 포항을 통해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의 기업과 물류가 포항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영일만항은 3만 톤급 4선석의 접안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야드를 갖춰 ON-DOCK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주·선사·포워딩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본서해와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등은 부산항보다 물류비 측면에서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 포항시, 포항쌀 소비촉진 캠페인 본격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포항시는 7월 23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시의회의장, 백성기 포스텍 총장, 종교계 지도자, 시민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쌀 소비촉진 범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포항지역의 쌀 재고량이 6월말 기준으로 7,600톤으로 올 9월까지 이를 소비하지 못할 경우 올 가을 수매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마련됐다.

로컬 푸드 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유통거리를 줄임으로써 화석연료를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운동이다.

### 포항국제불빛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내년 기약

바다에 그리는 꿈! 영일만에 영그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열린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내년을 기약했다. 이번 축제는 7월 25·26일 이틀만 열리는 등 지난해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시승격60주년 기념행사와 어우러져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됐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굶은 날씨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부해수욕장 개막식에 약 73만 명, 형산강 체육공원 폐막식에 약 50만 명 등 모두 1백23만여 명이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 다양한 기능성 식물 보여 스트레스 날린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정서안정과 감성순화에 도움을 주는 원예치료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 유리온실로 꾸며진 원예치료실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수련 31종, 수생식물 37종을 비롯해 선인장 등 기능성 식물들과 직접 만든 작품을 키우는 전시실 등 테마 있는 휴식공간과 산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원예치료실은 다양한 기능성 식물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 테크노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뇌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등 마음의 병을 자연에서 치료하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 농업인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일본 JR큐슈 여객철도·고속선과 업무협약

포항시가 일본 JR큐슈여객철도와 JR큐슈고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5일 일본관광객유치와 항만물류교류, 부품소재 기업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일본 JK큐슈 여객철도회의실에서 마치 다카시 본부장과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명품도시를 만드는 테라노바 프로젝트



포항여객터미널 울릉도 선착장 옆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재장비 비축기지가 포항시에 설계경기 대행서비스를 맡겨 디자인과

조형성이 뛰어난 건축물로 태어나는 등 곳곳에서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설계경기 대행서비스는 시가 타기판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성을 띤 시설을 건립 시 건축설계경기 절차와 기술적인 부분을 시가 지원 또는 전면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돼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포항~제주 항공노선 취항기념식 개최

7월 31일 포항에서 제주로 가는 하늘 길이 활짝 열렸다. 이날 포항~제주 항공노선 취항 기념행사가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시의회의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항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항시와 아시아나항공의 모객 노력의 결과로 160석 만석을 기록하며 제주로 첫 출항했다. 매주 3회(화·금·일요일) 운항한다.

### 포항야구장, 설계 당선작 선정



포항야구장 설계경기에서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및 대형체육시설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축가 4개 그룹이 경쟁을 벌인 결과 포스-에이씨 컨소시엄 그룹의 설계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당선작은 Steel Flower를 상징으로 철강산업도시의 에너지를 표현했으며, 영일만 태양의 기운과 역동하는 바다의 기상을 모티브로 포항의 빛과 철을 형상화하는 등 지역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12월 착공하는 야구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500㎡에 관람석 10,000석 이상 규모이다. 특히 야구장과 남구청을 복합 건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 제1회 형산강배 포항사랑 용선대회 '인기'

포항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의 일환인 제1회 형산강배 포항사랑 용선(드레곤보트)대회가 7월 26일 형산강 일원에서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읍면동 대항전인 포

항사량부 부문에는 29개 읍면동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1위에 양학동이 차지했고, 기업·단체 대항전인 마스터즈부 부문에는 18개 팀이 열린 경합을 벌여 0133축구클럽이 1위를 차지했다.

▶▶▶ 포항시, 편의점 형태 '푸드마켓' 개점



포항시는 7월 13일 남구 송도동 436-57에 저소득 계층이 생활 용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푸드마켓'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푸드마켓은 187.53㎡의 면적에 기부식품 진열장을 비롯해 냉동·냉장설비, 포장작업장, 이용자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장에는 70여종의 식·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 전국 45개 푸드마켓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푸드마켓 이용대상자는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새터민,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600명이 선정됐다.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3~4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글로벌 포항, 청소년 국제교류 Go! Go!

하얼빈 조선족 제1중학 한국어 연수단 학생과 교사 32명이 7월 25일 포항을 방문해 POSCO를 비롯해 대통령 생가 등 지역 명소를 거학하고 동지고 학생들과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며 돈독한 우정도 나눴다. 한편, 청소년해외문화탐방단으로 선발된 포항지역 고교생 25명은 7월 2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자매도시 후쿠야마 이요유 고등학교를 방문, 일본학생들과 1대1 자유여행과 역사유적지를 견학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다목적광장 조성, 철강공단 주차난 해소

포항시가 철강공단업체들의 불편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현대제철 인근 형산강둔치 15,700㎡에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설치해 철강관리업체들의 주차난을 해소했다. 지난 2월에 착공해 5일 준공한 다목적광장은 지난해 11월 포항시장이 기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민생안정 기동투어' 기간

중 철강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현대제철 옆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차로 인한 화물차의 교행이 어려워 운행에 애로가 많다는 건의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개최

포항시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중·일·러 4개국 11개 도시가 참가한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도시 시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주요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해 거점도시 간 국제협력·경제교류·관광개발·우호협력 확대방안, 지리적 장점과 자원을 활용한 경제인프라 구축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참가국 비망록 서명과 '환동해 지역의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포스코를 비롯한 첨단연구시설, 영일만항, 죽도시장, 전통문화 등에 대한 투어가 이루어졌다.

▶▶▶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기 포항 도착

'푸른 꿈, 힘찬 도전, 밝은 미래'의 슬로건을 걸고 2010년 포항시 개최될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기가 8월 10일 4회 대회지인 통영시로부터 포항시에 전달됐다. 대회기를 수령한 포항시는 해양스포츠의 진면목을 보여줄 2010년도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포항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포항시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무섭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이 글은 1950년 8월 11일 새벽 당시 포항여중 앞 전투에서 군번도 없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펜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예용군 71명 중 48명이 전사했는데, 이들 전사자 중 서울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어머니께 보내는 피로 얼룩진 편지글의 일부이다. 포항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학도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애국애족 정신교취를 위해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글 내용 전문을 용흥동 탑산에 편지비로 건립했다.

▶▶▶ 포항시의회, 해외연수에 새바람 일으킨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초의원 해외연수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알차고 뽕뽕한 연수일정을 계획하고 연수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성 외유, 예산낭비 시비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을 씻고 정책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겠다는 의지다. 새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은 이철구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사진).



이 위원장은 7월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시와 장가항시를 방문하면서 이동시간을 이용해 버스 내에서 견학지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다가 하면 귀국 후 연수과정과 연수에서 느낀 점을 공개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8월 21일 임시회 간담회석상에서 전체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외여행 심사위원, 사회단체,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직접 연수과정과 연수성과를 파워포인트로 설명했고, 이 같은 계획과 연수를 하고 느낀 소감을 모일간지에 '시의원 해외연수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국 상해 스포츠파크호텔의 경우 노후된 포항종합경기장과 주변 스포츠시설들을 정비하기위해 반드시 벤치마킹하여야 할 대상이고, 도시 전체가 건축박람회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은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포항시로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가항시 기업유치전략과 국제학교설립은 현재 2,500만㎡에 가까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포항시가 벤치마킹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연수 보고회는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따듯한 눈치를 의식하면서도 반드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보고회가 시민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의원 연수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무더운 날씨와 뽕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수를 소화해 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 포항시의회 의원 '휴가철, 바쁘다 바빠'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여름휴가도 잊은 채 '민생행기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비회기로 사실상 여름휴가에 해당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비회기를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삼아 민원청취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찬 휴가를 보냈다. 특히 복덕규 의원(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은 7월 17일부터

국민은행 두호동지점 앞 등지에서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7.3%로 다른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 주민발의 조례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정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7월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새벽 6시부터 피서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 배출상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2명과 함께 월포해수욕장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환경미화원 일일체험을 마친 후 월포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환경정비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최영만 의장과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은 7월 20일 개장을 앞둔 영일만항을 방문하여 개장준비 상황과 물동량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물류망 구축과 기업물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민생현장 속으로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7월 28일 소속 위원, 남구보건소 직원, 구룡포 상가번영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룡포 재래시장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어패류 및 수인성 매개 전염병과 신종 플루, 수족구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 미 해병 무적캠프 부대장 시의회 방문

포항시의회는 7월 23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미 해병 오천무적캠프 부대장 데니스 핫 소령의 내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만 의장은 그동안 미 해병대 무적캠프 장병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강의와 봉사활동 등 민·군 화합의 연결고리를 잘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매년 미 해병 무적캠프 장병들의 초청과 답방으로 독특한 우의를 다져온 시의회는 지난 1월에도 무적캠프를 방문,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한 바 있다.

### >>> 종이팩은 귀한 자원, 분리수거 하세요

포항시는 종이팩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수거함 400개를 보급한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우선적으로 종이팩 분리수거함 80개를 보급하고, 12월까지 320개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급 천연펄프와 코팅된 PE필름,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져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종이팩이 일반 폐지나 신문지와 함께 배출되어 종이팩의 30%만이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 >>> 불법주정차 견인비용 대폭 올린다

포항시는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으로 관련 조례를 7월 21자로 개정하고 8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2.5톤 미만 차량은 견인요금이 25,000원에서 3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의 경우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한다. 견인대상차량은 주정차 위반 차량 중 견인자동차시서가 부착된 차량에 한정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방해차량 관련 민원은 포항시 남·북구청 교통지도계(남구 270-6431, 북구 240-7431)로 문의 하면 된다.

### >>>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 개시

포항시는 8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전자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으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자납부영수증 발급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전산수납 처리된 16개 지방세 전체 세목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납세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도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 >>> 재사용종량제 봉투 대형마트에서 판매

포항시는 환경오염원인 일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롯데마트 등 12개 포항지역 대형마트에서 8월 중순부터 판매한다.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은 고객이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물건을 담은 후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20리터 규격으로 현재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와 같은 가격인 440원에 판매된다.

### >>> 200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8월 1일 현재 포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접속 납부,

삼성·현대·BC카드납부, 대구은행·농협계좌 소유자는 폰뱅킹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남구청 세무과 270-6244, 북구청 세무과 240-7244]

### >>>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도 줄이고, 줄인 에너지량 만큼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여대상는 세대주(개인) 및 시설 소유(사용)자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참여자의 적립 탄소포인트에 따라 현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통이용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문의 : 환경위생과 270-3093]

### >>> 환호공원, 클린도시 자연공원 만들기

포항시는 환호해맞이공원을 '저탄소 녹색환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8월부터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공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원 내 취사행위, 야영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음주가무, 고성방가,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전동차, 오토바이, 애완견 출입행위(목줄착용 시 출입가능)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 투기는 물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되 가져 가기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단계별 시행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는 7월20일부터 신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와 소통확보를 위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 점멸신호 운영 확대 (24:00~06:00)
  - 대상 : 야간·휴일 등 교통량이 적은 도로 109개소
  - 내용 : 적색점멸신호엔 일시정지, 황색점멸신호엔 서행
-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확대
  - 대상 :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횡단보도 신호등 27개소
  - 내용 : 버튼을 누르고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이용
- 비보호좌회전 확대
  - 대상 : 신호 있는 교차로 65개소
  - 내용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 >>> 포항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이용 안내

포항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평생학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홈페이지(http://life-ll.ipohang.org)로 접속하면 평생학습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문의 : 평생학습과 270-2864]

### >>> 8월 포항시민교양대학 안내

- 일 시 : 8월 2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 강 사 : 방우정 (유머화술과 파워스피치 강사)
- 주 제 : '건강한 삶, 즐거운 인생'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

[문의 : 포항MBC 289-0122, 포항시 평생학습과 270-2871]

### >>> 2009년 9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왕초보 등(9개과정 9개반)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기 이수한 교육과정 수강신청불가)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 2층), 270-5825
  - 남구 시민정보화교육장 1, 2강의실(종합운동장 2층), 270-5823
  - 북구 시민정보화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270-5824
- 신청기간 : 2009. 8. 31(월) 09:00부터 선착순
- 인터넷접수방법은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 후 →아이디란에 ipohang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최근 강좌→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 선택 [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총력

포항시는 남·북구보건소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부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응급진료실을 설치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의심사례자 신고기준은 국외 위험지역을 여행한 후 입국한 자 및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 중 7일 이내에 37.8도 이상의 발열증상을 수반하면서 기침, 코막힘 및 콧물, 인후통 등의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자이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로 입을 가리고 하며, 외출 전·후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의심사례 증상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한다.

### >>>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8월 1일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가 통합되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가 발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산전진찰과 분만비용을 지원(건강보험재정)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가구 월1,956천원)인 저소득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일반재정)한다. 그동안 임신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시에 발급받는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26]

###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가족 역량강화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족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자립을 도우는 전문기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그 가족,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법률, 구직,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상담 및 자원연계 등을 실시한다. 이용시간은 월~금(09:00~18:00)이며, 전화 혹은 방문 상담(무료)하면 된다.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242-0260~1]

### >>> 2009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09. 9. 1 ~ 12. 18 (4개월,16주강의)
  - 교육대상 : 포항시 거주 일반인 (남, 여)
  - 모집과목 : 이야기 고사성어, 문인화(사군자), 천연비누와 화장품, 생활영어(기초), 소학, 요가, 풍물, 한글, 서예, 미술, 천자문, 명심보감, 장구·민요
  - 특별과목 : 대중가요(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 3개월3만원), 스포츠댄스(4개월 4만원)
  - 원서접수 : 2009년 8월 10일부터 (선착순마감)
  - 회 비 : 월25,000원(4개월 일시불80,000)에 전 과목 수강, 단, 특별과목 제외
- [문의 : 포항문화원 242-4711]

### >>>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9년 9월 ~ 11월(3개월)
  - 조사대상 : 253개 보건소별 만 19세이상 성인 평균 800여명
  - 조사내용 : 질병이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 조사방법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전담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
  - 조 사 처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 협조사항 :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적극 참여
- [문의 : 남·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70-4073, 270-4175)]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KOREA SAEMAUL EXPO

**일시 :** 2009. 09. 19 ~ 09. 23  
**장소 :**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시민운동장  
**온라인 사전행사 :** UCC공모전, 새마을사진 공모전

## 함소아한의원의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포항 함소아한의원의원(원장 여인효)은 삼복 기간에 드림스타트 아동 80여명을 대상으로 패치(삼복첩)시술, 진맥, 약선 제공 등의 동병하치(冬病夏治)를 실시했다.

동병하치란, 추운 계절에 쉽게 발병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질병을 더운 여름철에 예방한다는 뜻으로 인체에 양기가 가득할 때 체내 음양의 균형을 조절하여 만성질환을 다스리는 한의학 치료방법이다.

함소아한의원의 이번 시술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밖에도 당뇨 성장관리 등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질병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 ▶▶▶ 포항시 환경미화원, 봉사단 발대식 가져



포항시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이 11일 시청 사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사랑나눔봉사단은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2차례 정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배, 전기수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김삼성 사랑나눔봉사단장은 “사랑나눔봉사단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며, 그들이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 어떠한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소외된 이웃 등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의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환경미화원이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휴일도 반납한 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시는 봉사단원들에게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 ▶▶▶ 민간인 체계의 대보전담의용소방대 출범

구룡포소방파출소 대보지소는 7월 29일 정규소방인력이 아닌 민간인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대보전담의용소방대’ 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체계로 출발했다. 이는 경북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정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의용소방대의 자율방재능력을 강화하여 전담의용소방대로 확대 운영하는 제도이다.

### ▶▶▶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집수리 활동 전개

작은바람회(회장 장진우)와 주택관리사협회 포항지회 사회봉사부(부장 오규환) 회원 30명은 1일 연일을 인주리 소재 어려운 가정(독거노인 79세)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 도배 장판교체, 텃밭정리, 주변 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어려운 가정 2세대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벌였다.

### ▶▶▶ 지역 농협 PRC, 포항쌀60포 푸드마켓에 전달

포항지역에서 RPC(미국종합처리장)를 운영하는 연일(조합장 조영만), 흥해(조합장 백강성), 기계(조합장 권태현)농협은 7월 23일 포항 쌀 소비촉진 범시민 다짐대회에서 포항쌀 60포대(120만원 상당)를 7월 초에 개점한 포항푸드마켓에 전달했다.

### ▶▶▶ 포항사랑모임, 정인태 씨 등 장학기금 기탁



포항을 사랑하는 모임을 뜻하는 포사모(회장 이상홍)는 7월 25일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 북부해수욕장에서 박승호 포항시장학회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해 불빛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포사모는 올해 6월 세무회계 금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봉사단체이다. 한편, 포항시장학회 정인태 사무국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3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에 써달라며 7월분 보수 전액인 200만 원을 기탁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으로 장학기금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제목 | 라일락 | 크기 | 51 X 35.5 cm | 재료 | Water Color on Paper



김왕주 Kim wang-joo

국내외 단체전 및 교류전 다수 출품 / 공모전 특·입선 및 수상 다수 / 개인전 2회 / (현)한국미협포항지부 부지부장 / 포항구상화회원 / 포항미술학원장 / 경주·영덕도서관, 영덕문화원, 롯데문화센터 출강 / 대구대, 위덕대, 선린대 출강

## 미(美)와 술(術)

미는 무위이고 술은 작위의 개념이다. 가장 시원적인 관점에서 미술은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 바닷가 작은 모래 한 알에서 세계의 울림을 보고 듣듯 예술의 바탕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소박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 곧 예술이다.

김왕주는 앞뜰과 뒷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작가 특유의 감성과 미적인어로 승화 시켜온 작가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런 손맛이 일품이다. 수용성 안료의 스미고 번지는 자유분방함은 구획된 사물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내면서, 마치 짧지만 감동적인 에세이처럼 맑고 명징한 라일락 향기를 화면 가득 터뜨리고 있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